송정역세권 '광주 대표상권' 도약 시동

광산구 '상권르네상스 사업' 행정 절차 완료, 추진 본격화
광산로~1913시장 '1시간 맛거리' 조성 5년간 80억 투입

광주 광산구가 광주송정역세권의 전성기를 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권 환경 개선과 특색 있는 콘텐츠 확보를 두 축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11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모든 사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광산로와 1913송정역시장을 잇는 '광주송정역 1시간 맛거리' 조성 사업을 본격화 한다.

지난해 12월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중기부 현장진단, 중기부·광주시 협의를 비롯해 상인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와 광산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광산로와 1913송정역시장 일대 21만5241㎡를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사업계획에 대한 중기부와 광주시의 최종 승인도 마쳤다.

실질적 사업 추진 주체가 될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 사업추진단(이하 사업추진단)'도 인력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했다. 총 80억 원 규모의 광산구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막이 오른 것이다.

광산구는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 인근 상권을 광주를 대표하는 핵심 상권으로 부상시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곳은 광주송정역과 도보 1분 이내라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상권 위축이 더욱 가속화됐다.

1913송정역시장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분위기 전환을 기대했지만, 이마저 작은 규모와 먹거리 위주라는 콘텐츠의 한계로 지속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산구가 구상한 것이 '광주송정역 1시간 맛거리'다. 점·선·면 전략과 광산구의 '광'을 핵심어로 한 '오광만족' 콘텐츠로 광주송정역 이용객을 유입시키고, 오래 머물도록 해 지역의 매력을 느끼고 즐기다 갈 수 있는 상권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점)핵점포 구축을 통한 송정역 이용객 상권 유입(스타쉐프 유치, 광산구 대표식당 발굴) ▲(선) 상권 내 동선 연결(뒷골목 매력 더하기, 상권 아웃테리어 개선, 개성 넘치는 점포 구축) ▲(면) 상권 전체 매력도 향상(랜드마크 조성, 대표축제 개최, 공동브랜드 개발) 등이 주요 사업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광산구는 중기부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구체성과 실행력을 확보했다.

특히 '하드웨어'에 속하는 상권 환경개선과 '소프트웨어'인 상권 활성화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수립했다.

광산구와 사업추진단,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탄탄한 추진 체계도 갖췄다. 사업추진단이 사업 실행과 운영을, 상인단체가 참여한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자문을 맡고, 광산구는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KTX투자선도지구 개발 등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상권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견뎌온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송정역세권 전경.

광산구 '적정의료' 정책, 광주시 감사서 모범사례 선정
의료급여 사례관리 특수시책 추진 의료재정 절감 성과

광주 광산구는 "시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1월부터 장기입원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와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례관리 특수시책 '복지건강 up(업)! 의료비 재정 down(다운)!'을 추진해 왔다.

광산구는 그동안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과 합리적 의료 이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의료급여 대상자 181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안내하는 복지서비스 교육 '알약톡톡(알면 약이 되는 토크)'을 총 12회 실시했으며, 약물 오남용방지 및 불용의약품 안전 수거를 돕는 '환불수거대'를 운영하고 고위험군 211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올바른 약물 이용을 안내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위험군 진료비를 기준으로 2020년 34억 원에서 2021년 12월 기준 15억4000만 원으로 18억5000여만 원의 의료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늘행복 프로젝트'와 연계해 장기입원 퇴원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했다. 지금까지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 20명이 주거, 의료돌봄, 건강식 반찬 제공,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았다.

'따소미(따뜻하고 소망한 미래를 위한)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민간 자원과 각종 후원을 연결해 장기입원 후 퇴원한 20명에게 쌀, 이불, 그릇 등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에서 올바른 의료급여 수급문화 정착과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을 줄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및 합리적 의료 이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산구, 미래세대 눈높이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

광주 광산구는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눈높이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산구는 자원순환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자원순환해설사와 함께 지역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광산구 관내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8개교 등 총 33개 학교 1만1942명이 교육 신청을 했으며, 올해부터는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몰입할 수 있는 다채롭고 특별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을 위해 자원순환 그림책·게임(앱)·체험키트(교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론과 체험의 균형을 맞췄다. 특히 질 높은 교육을 위해 2020~2021년 자원순환 교육·캠페인사업을 통해 배출한 시민 자원순환해설사 28명을 선발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관내 초·중학교 30개교 9116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지난 10일 광산구 천곡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드게임을 활용한 자원순환 교육을 받고 있다.

광산구 독서프로그램 '활기'
어린이·청소년 독서습관 형성

광산구 도서관은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더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야기꽃도서관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어린이, 청소년의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정보 문화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달부터 8월까지 하남공립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8월부터 10월까지는 광산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과 진로, 역사, 문학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연다.

장덕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도서관 지혜학교'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8월부터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전남대학교 최창근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함께 '문학과 미술의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를 주제로 노년층을 위한 미술 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다.

운남어린이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2년 공공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지원사업' 운영 도서관으로 선정돼 6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창작실과 다양한 독서콘텐츠가 있는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운남어린이도서관은 또 아이들이 즐겁게 책을 볼 수 있는 특성화 공간인 '책보고 시끌'을 조성하는 '스페이스 브랜딩' 사업도 본격화한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꽃도서관(062-960-6813), 장덕도서관(062-960-39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오늘까지 참여희망자 모집

광주 광산구는 "주민의 예산 운영 및 편성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돕기 위해 '2022 광산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2층 대동회의실에서 열리는 '2022 광산구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입문 과정과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 과정으로 나뉜다.

이번 예산학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분권2.0 시대의 주체인 주민의 역할과 참여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또 능동적이고 전문화된 주민참여 활동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치분권 실질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입문과정 교육은 12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광산구 기획조정실 전화(062-960-8036) 또는 방문(광산구청 3층 기획조정실 자치분권팀)으로 가능하다.

광산구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